

한국교회와 주5일 근무제

이경직 *

논문 초록

이 논문은 먼저 주5일제근무 도입이 가져온 도전과 그 의미를 다루며, 이어서 새로운 노동 체계에서 나오는 도전들과 반응들을 다룬다. 또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보여주하고자 한다. (1) 소위 전원교회는 교인들에게 예배와 여가를 동시에 줄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지닌다. ① 한국 교회 대부분에는 전원교회를 세우고 유지할 재정 능력과 인력이 없다. ② 도시 근교와 지방에 세워지는 전원 교회는 그 지역의 소규모 교회의 교인들을 흡수해버릴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상호협력을 수정안으로 제안한다. (2) 한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강조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초심자와 비기독교인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3) 교회 안에서 대안적 기독교 문화를 설계하고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 (4) 교회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비기독교인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교인들에게 많이 주어야 한다. 특히 (5)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부부들을 위한 주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제도 교육을 보완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주5일제 근무 도입 이후에 강화될 이 활동들로부터 교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핵심 주제어: 주5일근무제, 전원교회, 사회봉사, 예배, 주말학교

* 천안대학교 기독교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주5일 근무제와 한국교회 대처방안

III.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예고했다. 이미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는 7일 가운데 5일만 직장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이전보다 2배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낳는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연간 휴일 수는 지금 약 110일에서 약 160일로 늘어날 것이다(김태진, 2002).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강화로 이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높아지는 노동강도를 감수하면서까지 여가 시간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정무성, 2001).

이러한 변화 뒤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경제성장과정에서 바람직한 삶의 형태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보다 많은 여가를 누리는 삶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게 되었다(정무성, 2001). 치열한 국제 경쟁 가운데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도 한 몫 한 것 같다.

주5일 근무제 덕분에 여가 시간과 공간이 확대될 것이다. 일과 여가가 분리된 것은 산업화 때문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농경사회의 공동체적 삶에서 일과 여가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주5일 근무제는 우리에게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여가는 일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일은 경제활동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여가는 경제적 보상이 없지만 보람과 의미라는 사회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함인희, 2002).

따라서 주5일 근무제의 가장 큰 의미는 삶의 정체성을 경제적 활동에서만 찾는 태도를 버리게 한다는 점에 있다. 경제적 성장 덕분에 한국민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삶의 질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취업정보사이트가 직장인 17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 봉급이 줄어든다 해도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55%) (남태섭, 2002).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일과 여가,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종교적) 활동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여가시간을 가족에게 투자했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도 가족 중심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만남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늘어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낚시 동호회(Gemeinschaft), 요트 동호회, 축구 동호회 등과 같이 가족과 국가 사이에 중간적 단계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그 동안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직업에서만 찾았었다(이동현, 2001). 더 나아가서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 외에 다양한 교육이나 취미생활을 누림으로써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함인희, 2002).

2.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주장들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내세운다. 첫째,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들이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여가를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정무성, 2001). 그 동안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많이 생겼다. 특히 한국에서 산업재해 때문에 죽는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박강우, 2002). 주5일 근무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비율을 많이 낮추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두 번째 장점은 실업문제 극복에 있다. 주5일 근무제는 레저 산업이나 예술, 공연, 스포츠 산업과 같은 소비 산업 등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냄으로써 일자리를 더 만드는 한편, 근무하지 않는 이들에 대체인력이 노동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나누어 노동기회를 높이는 역

할을 한다(정무성, 2001; 박강우, 2002). 선진국의 경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한 후에 서비스업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고용과 소득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주장들

주5일 근무제를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입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주당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나라의 연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데 반해, 아직 1만 달러에도 이르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정무성, 2001).

무엇보다도 주5일 근무제의 전제조건은 높은 노동생산성인데, 아직 그러한 전제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민은 놀 때와 일할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습관을 지닌다. 둘째, 사회적인 근무조건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해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 셋째, 월차휴가와 같이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아직 시행하고 있다(이영권).

II. 주5일 근무제와 한국 교회 대처 방안

1. 피할 수 없는 현실: 주5일 근무제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도입 시기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뿐이지 그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한길리서치가 2000년 5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은 대부분 주5일 근무제와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고 있다(김은홍, 2001a). 월간지 『빛과 소금』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리스도인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5일제를 크게 지지했다. 찬성 의견(76.3%)이 반대의견(11.6%)을 압도했다. 또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주5일 근무제를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 주5일 근무제가 주는 도전들

(1) 가정의 위기

하지만 주5일 근무제는 위기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동안 한국남성들은 가정보다 직장을 더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하는데 사용했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휴일은 대부분 직장에서 쌓인 피로를 푸는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가를 보내는 경험이 적은 편이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때문에 갑자기 많은 여가와 시간이 주어진다 것은 배우자나 자녀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더 갈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랄프 도렌부쉬(Ralf Dorenbusch)가 휴가 기간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도렌부쉬에 따르면, 휴가 여행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배우자에게 실망하기 쉽다. 최근 한국에서 3-40대의 이혼율이 높은 까닭을 1960년대 경제성장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일벌레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건전한 가족생활을 배우지 못한데서 찾는 사람도 있다(김은홍, 2001b).

취업 여성의 경우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생기는 여가를 가사나 자녀 양육에 사용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남성들은 스포츠와 같은 취미 생활이나 재충전에 여가를 사용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남성의 여가 활용에는 비용이 들 것이며, 가계를 꾸려 가는 여성 배우자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이 여가시간을 집안에서 보낸다면, 아직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는 남성들은 여성 배우자에게 대접받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부부 사이에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남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선진국의 경우 남성의 가사 참여율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한국 남성들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이기영, 2002).

더 나아가서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빈부 격차가 늘어나면서 가난한 계층의 가정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가난한 계층의 가정은 경제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빈부격차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정은 문화적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늘어난 주말이 지겹고 짜증나는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김은홍, 2001c). 또한 부유한 계층의 경우도 자녀와 함께 주말을 보내기보다 자녀가 과

외나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교회가 주5일 근무제에 대처하는 방안에는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는 대답이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여가 문화 선용의 어려움

일부 산업분야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대부분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TV시청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 중심의 삶에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취미활동을 누리는 삶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김선희, 2002). 이는 한국 교회에 기회이기도 하다. 주말을 보내는 계획과 방식이 한 번 고정되면 잘 바뀌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주말 여가를 보내는 방법을 먼저 제안하여 사람들의 주말 여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낯시 동호회에 가입해서 주일마다 낯시하러 가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 중국의 경우, 북경시 제1실험 소학교 교장에 따르면, 주 5일 수업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충분한 휴식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얻기보다 큰 부담을 지게 되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토요일에 자녀들을 각종 사설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에 보내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동들이 감당키 어려운 정도로 많은 숙제를 주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교사들도 무료하게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토요일을 효율적으로 지낼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고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사회의 제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주5일제 수업을 맞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토요일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적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많이 키워야 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 한국 교회와 주5일 근무제의 도전

주5일 근무제 도입은 한국 교회에 큰 과제를 던져준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때문에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교인들의 삶의 자리와 모습이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변치 않는 성경말씀(text)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삶의 현장(context)이 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늘어난 여가시간이 교통수단의 발전(경부고속전철 등)과 맞물리면서 삶의 공간적 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교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의 목회와 주일 중심의 목회에 도전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일성수 개념에 혼란을 줄 것이다.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주말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주일날 소속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옛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을 휴식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것이다. 전자를 현실적 문제라고 여긴다면, 후자를 신학적 문제라고 여길 수 있다(임성빈, 2001).

따라서 한국 교회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을 때 두 가지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찬반이 맞서 있으며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많이 내놓지 못한 상태이다. 아직 교단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조희섭, 2002a).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선 주5일 근무제가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와 한국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국 교회가 성경 말씀에 바로 서서 그러한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길을 모색하려 한다.

4.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회의 반응

(1) 부정적 반응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교회의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한국 교회와 주5일 근무제-그 문제점과 대책’라는 주제로 한기총과 한국복음주의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5일 근무제는 교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글을 발표한 이종윤 목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옛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면서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 준수 계명을 어긴다는 점에서 비성경적이다(안연용, 2001). 그래서 예장 고려총회는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는 경우 세속화로 내닫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였다(조희섭,

2002b). 이러한 입장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반대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반대 이유는 주일성수 문제, 즉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수의 감소에 있다(윤용상, 2002c). 이러한 입장은 유럽 등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교회 출석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사례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전병금 목사는 주5일 근무제와 레저 문화의 발달이 유럽 교회 쇠락의 원인이라고 여긴다(전병금, 2002). 주5일 근무제 때문에 레저와 향락 산업이 발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보다 방탕한 삶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교회가 주중예배를 드리거나 휴양지를 예배 장소로 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이라고 여긴다(석원태, 200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까닭도 여기에 있다(김은홍, 2001b).

(2) 반론들

그러나 이러한 반응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이러한 반박에 따르면, 유럽 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주5일 근무제에 있지 않다. 주5일 근무제나 교회의 쇠퇴는 세속화의 결과일 뿐이다. 결국 유럽 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 교회의 세속화에 있지, 주5일 근무제에 있지 않다. 이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환경에서도 교인수의 격감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학적 자유주의를 멀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한국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무성 교수가 그러한 입장을 나타낸다(성민혜, 2001). 그래서 주일예배 외에도 (수요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확대해서) 매일 예배를 개설함으로써 교인들의 예배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정무성, 2001).

또한 주5일 근무제가 비성경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이 반박에 따르면, 이 주장은 안식일과 주일을 구별하지 못한 유대교적이고 율법적 관점에 묶여 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따르면,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것과 그 중 하루를 주일로 지키는 것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났을 뿐이지 주일은 여전히 일요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섯째 날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이웃을 위한 자원 봉사나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임성빈, 2001). 예를 들어, 이

준원목사는 오래 전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토요일을 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더욱 많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토요일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주일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초원교회 이준원목사는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것은 다원화된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박건상, 2002).

또한 6일 동안 일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일 십계명을 위반한 것이라면, 주중에 있는 국가공휴일이나 연말연시의 휴가나 휴무일에 일하지 않고, 토요일에는 하루의 절반만 일하는 것도 십계명을 위반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주5일 근무제가 삶의 질을 높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에 맞는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 자체도 인간을 위한 규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유승원 교수에 따르면, 안식일 제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휴식에 있지 않고 인간의 휴식에 있다. 유교수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2:27)고 말씀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안식일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윤용상, 2002b).

또한 주일에 소속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문제를 목회에 대한 공간적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임성빈 교수는 이 도전을 교회론 차원에서뿐 아니라 신론 차원에서 이해하려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교회 건물 안에 제한해서는 안된다. “우주의 1인 치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주5일 근무제를 통해 교인들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 것을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건물로서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연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회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개교회주의적 교회론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되는 유기체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임성빈, 2001). 이 입장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교회와 세상의 분리라는 이분법에 빠져 있던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전초 기지로 여기며 온 세

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겨질 것이다.

(3)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야 위기와 기회

교회와 세상의 분리라는 이분법을 문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다 보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게 여길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신학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신학적 논쟁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주5일 근무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교회에 가져올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는 구체적 전략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전병금, 2002).

물론 신학자들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목회 현장은 원리적 찬반 입장보다는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설령 주5일 근무제가 비성경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는 물음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김은홍, 2002a). 그래서 최근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는 신학 논쟁에서 벗어나 목회현장의 실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로 넘어가고 있다. 비록 주5일 근무제가 한국 교회에 고난으로 다가 오더라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목소리이다(이선, 2002). 그래서 최근 논의는 주5일 근무제를 이미 전제하고, 교회의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찾는데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는 새로운 목회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다(이지현, 2001).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한 교회 전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재정과 인력이 충분한 소수 대형교회만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대다수 교회가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전병금, 2002).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일반 성도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소장: 송길원)가 펴낸 『주5일 근무제 자료집』(서울: 기가연, 2002)에서 장세규 목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둘러싼 논의는 서민과 노동자, 일반 성도를 고려하지 못

하고, 교인수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은홍, 2002b). 교인 대부분이 노동자인데도 교인의 입장보다 교회의 입장만 내세운다는 비판이다.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한국 직장에서 힘든 업무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고 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쉬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를 토요일은 휴식하고 주일에 마음껏 교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교인들도 있다(윤용상, 2002c).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전보다 노동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토요일 등 휴일에 멀리 여행을 떠나기보다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식 참여나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 등과 같이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주일의 피로 때문에 주일에 교회봉사를 꺼렸던 사람들이 교회봉사에 보다 적극적인일 가능성도 있다(남태섭, 2002).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기독교신문이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와 2001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교회에서 토요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응답자의 83%(568명)가 그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교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주5일 근무제가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은홍, 2001c). 이는 2002년에 월간지 『빛과 소금』이 그리스도인 직장인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도 반드시 주일을 지킬 것이라고 대답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윤용상, 2002c).

5. 교회의 대처 방안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대처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긍정적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가 잘 대처하는 경우 주5일 근무제는 그 동안 방치되었던 가족문화를 되살리며 교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홍, 2001b).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두고 처음에 교회가 당황한 모습을 보인 원인은 교회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데 있으며, 잘 준비하는 경우 주5일 근무제가

도리어 교회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성희 목사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 실시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교회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을 정리하면서 그 방안들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

(1) 주말 전원교회 또는 레포츠 교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확대를 경험할 것이다. 휴일이 하루여서 멀리 여행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늘어난 휴일 덕분에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관광, 레저 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주일예배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말전원교회나 레포츠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사랑의 교회가 안성 수양관에 세운 주말교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오후까지 예배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함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휴식과 재충전, 예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주일 예배 후 오후 시간에 풍선 만들기, 꽃꽂이 강좌, 탁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기도 한다. 왕성 교회의 경우도 그러하다. 왕성 교회가 운영하는 십자수 기도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를 마련하여 주말전원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무정, 2002). 성광교회도 강화도에 성광수도원을 세운 후 2001년에는 봄, 가을 두 차례 전교인이 수도원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들 사이에 교제하도록 했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수도원에서의 전교인 예배 회수를 늘리려고 한다. 성광수도원을 교인들에게 언제나 개방해서 가족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하게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의 가족모임을 유도하고 주일은 지키도록 유도하려고 한다(윤용상, 2002e). 순복음인천교회도 성산청소년예수마을을 완공해서, 가족 전체가 와서 신앙 교육과 전인교육을 받게 하려 한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오늘날 부족한 효 교육도 시키려 한다(민성식, 2002). 인천 연수제일교회도 충청도에 수양관을 마련하고 속 단위로 가족별로 매주일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한다. 이처럼 수도원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속한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이용해서 주말을 수양관에서 예배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윤용상,

2002c). 교회성장연구소 정종현 연구원이 제안한 대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위의 사례들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직영 수양관을 전원교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다른 교회와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설립된 전원교회도 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전원교회는 대전지역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진광전원교회처럼 서울에서 남양주로 장소를 옮겨 전원교회가 된 경우도 있다(김성봉 외, 2002).

그러나 이러한 대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교회가 직영하는 수양관을 주말교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재정과 인력이 풍부한 소수 대형교회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교회에게 이러한 대안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대안에 따르는 경우, 대형교회와 중소형 교회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질 것이다. 중소형교회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들(전문화된 주일학교 교육, 넓은 예배공간과 교육공간, 양질의 교사들, 대형성가대와 좋은 악기들 등)을 대형교회가 제공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수평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교회들이 추진하는 대안은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는 본 교회 교인들이 안성 수양관을 사용할 때 많은 혜택을 준다. 오랫동안 개척교회에 참석하던 교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한 대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둘째로, 주말전원교회 운영은 교인의 수평이동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성광교회의 경우 성광수도원 설립 목적에는 휴양지인 강화지역에 휴가온 사람도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들어 있다(윤용상, 2002e). 그런데 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열악한 재정 상태에 있는 지역교회를 떠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좋은 주말전원교회로 온다는 데 있다. 이는 힘들게 유지되어 오던 농어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사는 교인들이 도시 지역의 교인들과 같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지역교회이어야 하며,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말에 휴가 분위기로 운영되는 주말전원교회가 농어촌 지역교회의 역할을 다 대신할 수 없다. 또한 수요예배나 새벽기도회와 같이 주중에 이루어지던 예배 프로그램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주말전원교회를 직영하는 대교회에서 주말에 와서 출석하는 교인들과 주말전원교회에만 출석하는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주말전원교회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수도권에 사는 대교회 교인들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휴양 역할만 하는 전원교회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김성봉 외, 2002).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광현교회의 사례가 바람직할 수 있다. 수도권의 교회와 농어촌교회가 본교회와 지교회라는 관계 대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형제교회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주군에 서울광현교회에 의해 설립된 여주광현교회는 지역복음화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에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맞맞추어 여주에 있는 문화적 자산(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여주쌀 등)을 활용하여 주말휴가를 오는 교인들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박민균, 2002). 두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협력한다면 한국교회에는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5일 근무제는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교회 사이에(특히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 사이에) 협력 사역으로 나가도록 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생긴 여가 시간을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교인 개인의 신앙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농어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여가에 뒷발을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농어촌 교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일손을 돕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윤용상, 2002c). 또한 농어촌 교회는 도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목회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영성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침체된 농어촌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농어촌 교회는 도시 교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환영한다(김혜은).

하지만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준원 목사의 지적처럼, 교인의 영성 훈련에 힘써야 한다. 그저 자연을 즐기러 가는 것이 우선시된다면, 전원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휴가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여행지에 있는 농어촌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농어촌 교회는 매주 바뀌는 얼굴들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박건상, 2002). 유명 관광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 학생들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매일 여가를 즐기고 일은 하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가를 나온 사람들의 복장과 태도는 주중에 힘든 노동을 하고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농어촌 교회 교인들과 어울리기 힘들 것이다.

(2) 주일성수의 강조

대교회처럼 전원교회를 직영하거나 교회 자체가 전원교회로 바뀔 수 없는 경우 많은 목회자들은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성광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조영준 목사는 교인들에게 주일성수를 이전보다 더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윤용상, 2002e). 신촌포럼에서 발표한 양경훈 목사도 주일성수를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민혜, 2001). 그래서 가나교회(박성서 목사)의 경우 2002년 4월 첫주부터 전 교인을 대상으로 “100주일 예배지킴이 서약”을 실시하고 있다. 절기예배를 포함해서 3년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서약이다(김성봉 외, 2002). 가톨릭에서도 주일미사와 미사 가운데 강론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내놓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남태섭, 2002).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즉 주일성수를 제대로 하는 것인가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출석해야만 주일성수를 하는 것인가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소속교회에 출석해야만 주일성수를 하는 것이라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안에 있는 예배실에서 예배드린다면 주일성수를 하지 못한 것인가? 몇 달 간 멀리 출장 가서 현지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주일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주일성수 개념은 많은 교인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결국 신앙생활의 퇴보를 가져오기 쉬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주일예배만 드리면 주일성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행하다가 근처 교회에서 잠시 주일예배 드린 것으로 주일성수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콘도에는 여행객을 위한 예배실이 준비되어 있고 전담목회자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의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 특성인 공동체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교회는 주5일 근무제 때문에 강화될 개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도리어 개인주의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방

향으로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예배 참석만을 주일성수로 여기지 않고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교회에서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윤용상, 2002c).

더 나아가서 주일성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때문에 발달할 여가문화에 대항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배문화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세속적 여가문화에 맞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윤용상, 2002c).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후에도 교회가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 가지 모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으며(78.8%),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3) 기독교적 대안 문화 제공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주일성수를 강조하는데 그치지 말고, 건전한 기독교대안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휴일인 토요일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며, 이것을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해서 전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용상, 2002c). 이와 관련하여 정무성 교수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성민혜, 2001).

일산에 있는 광성교회를 담임하는 정성진 목사는 주5일 근무제가 신앙이 굳건한 사람에게는 문제되지 않지만 믿음이 없거나 약한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부나 불신자에게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교회에 오도록 하는 편안한 문화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봉사요원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집 드나들 듯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된 후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전도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1997년에 개척된 교회가 재적교인만 3500명, 출석교인만 2200명에 이르도록 큰 부흥을 이룬 배경에는 이러한 정책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회는 50개 무료 문화강좌를 운영하며, 1270세대 지역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도서관도 운영한다. '10대들의 동지'라는 청소년센터에는 3천여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공연문화를 즐긴다. 이곳은 주일날에는 중고등

부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며, 평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가 된다(우은진, 2002). 이는 여가 시간이 늘어도 그 시간을 취미활동이나 학습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고성훈, 2002)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휴일인 토요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토요일을 문화선교일로 정해서 교회를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 사회의 생활 중심지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남태섭, 2002).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 초원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회가 동대문 상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밤에도 쉬면서 교제하는 장소를 제공하려 한다. 초원교회를 담당하는 이준원목사는 교회가 한국사회에 건전한 놀이문화와 휴식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박건상, 2002). 교회성장연구소 정종현 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도 그 교회에 맞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인들의 희망에 따라 붓글씨, 컴퓨터 강좌, 꽃꽂이 등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이다(조희섭, 2002a).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주5일 근무제가 일부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어떻게 여가를 보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여가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고 사람들의 주말문화를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 중심의 문화를 잘 개발한다면 주5일 근무제는 교회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전병금, 2002).

그런데 이러한 대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회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교회는 세속적인 향락문화를 재생산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도리어 기독교적 가치에 바탕을 두는 대안 문화를 내놓아야 한다(정무성, 2001). 이를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술, 문화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각 문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 대학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육에 힘쓸 뿐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사회 각 분야, 특히 문화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문화사역자를 길러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 교회는 신학생뿐 아니라 기독교 문화사역자를 길러내는데도 후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송길원 목사의 제안처럼, 신학교도 문화신학이나 놀이 신학과 같은 교과목들을 개발하여 미래의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2002: 20).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인들을 발굴하여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기독교적 대안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후원하며 그러한 교인들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행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인으로 하여금 국내 성지여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2002: 24). 또한 극장업계가 주5일 근무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문화부, 2002), 교회는 교단이나 법교단 차원에서 기독교 영화인들을 후원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세속적, 향락적 가치가 영화 매체를 통해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영화를 교회에서 상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동시에 선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 대학과 교회는 기독교 영화인 등을 길러내고 후원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적 대안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문화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부분의 가족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되었다. 또한 이혼율이 늘어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산아제한과 의료 기술의 발달 때문에 노령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재해나 교통사고, 공해가 늘어난 결과 장애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있다. 또한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참여함에 따라 탁아 문제 등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IMF 이후 정리해고 때문에 생긴 실직자 가족을 중심으로 가난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정무성, 2001). 이 공백을 교회가 메운다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전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주일은 예배 중심의 날, 토요일은 나눔과 섬김 중심의 날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토요일을 기독교 복지운동을 실천하는 날로 삼는다면 바람직할 것이다(이선, 2002).

그래서 각 교회는 기관별(남녀, 청년, 학생 등)로 토요일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계획하여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신앙을 생활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대로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어야 할 것이다(전병근, 2002). 이를 위해 주로 주말에만 사용되는 교회 시설들을 주중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개교회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사이에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정무성, 2001). 이미 2002년 월드컵 때 교회가 응원 관람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교회 개방의 효과를 거둔 적이 있다.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교회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봉사가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윤용상, 2002d).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항안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희섭, 2002a).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다. 부천제일교회는 전담 목회자를 파송해서 심곡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년 8억여원을 들여 헌혈, 장기기증, 효도관광, 실직자 가정돕기, 명절 때 사랑의 쌀 전달하기, 외국인 글로자 위로회, 지체장애인 수련회, 목욕 봉사대 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목욕봉사대는 혼자서 목욕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목욕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교회 주차장과 교육관, 대예배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상담실과 휴게실을 설치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윤용상, 2002g).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가 급격히 성장한 데는 불신 사회로부터의 칭송이 한 몫 했다는 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연수제일교회의 경우는 전원교회와 사회봉사를 결합한 경우이다. 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위해 충남 서산에 세운 엘립하우스는 교인들이 주말 여가를 영성회복과 기도생활을 하는데 사용하는 곳일 뿐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윤용상, 2002f).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교회가 제공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국가나 일반 사회가 제공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답습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기독교적 가치에 바탕을 두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대학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는 기독교 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며, 한국 교회들은 기독교 복지학을 전공한 인력을 교회 사역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사회봉사와 교회의 전도를 저항감 없이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말학교

70-80년대 한국 교회의 비약적 성장의 원인을 60-70년대 주일학교 교육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교회 주일학교는 일반 사회가 제공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육적, 문화적 수요를 채울 수 있었다. 뒤늦게 불교가 불교주일학교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문화적, 교육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회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 캠프나 어린이 캠프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뒤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여름성경학교의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 특히 중고등 학생의 경우 입시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더불어 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되려 한다. 정부는 83개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2003년에는 그러한 연구학교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주5일 수업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토요일 수업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이수과목과 수업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5일 수업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이틀이라는 휴일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을 계발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이용석). 또한 21세기 미래사회는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식을 얻기는 이전보다 쉬워졌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은 입시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고 암기하게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래서 교육개혁위원회는 학교 공부가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레

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따라서 교육 과정이 교육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각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에서 자율성을 얻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는 체험활동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주5일 수업제도를 통해 얻은 휴일은 학생들의 자기개발에 사용될 것이다. 그동안 학교를 오래 다녀도 기본적인 생활습관이나 기본 예절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웠다. 인간적 교류를 통해 배워야 할 사회성이나 봉사 정신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주5일 수업제도가 확보해주는 휴일은 학교 수업이 제공할 수 없는 인성교육, 공동체 교육, 인간 관계 체험, 가족과의 유대 강화 등에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주5일 수업제도는 학생의 교육에 가족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도를 전면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공백을 메꾼다면 60-70년대 교회주일학교 때문에 생긴 교회 부흥에 이어 제2의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학교 교육이 채워줄 수 없었던 인성교육을 신앙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채워줄 수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지역사회나 가정과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가 제공한다면 주말 휴일을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인성과 자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교회가 개발하고 제공한다면,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복음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수업제도를 실시하려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여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과 여건은 매우 부족하다. 교회가 그러한 시설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교육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임성빈, 2001). 이는 교인 가운데 교육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이민도 서슴치 않고 거리기 아파가 되는 것도 감수한다. 어린이 주일학교에 사역의 중심을 둔 꽃동산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교회가 주5일 근

무제 때문에 얻은 여가를 지역 사회 청소년 교육에 힘쓰는데 사용하게 한다면 주5일 근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성광교회는 주5일 수업제도에 대비하여 지역학생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려 한다(윤용상, 2002e).

하지만 지역 사회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일반 교육프로그램을 답습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대학들은 기독교 교육학 전공자들을 길러내야 하며, 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인력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6) 가정 중심의 시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가정은 직장에게 우선권을 내어주어야 했다. 가정에 충실한 사람보다는 직장과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 더 평가받아왔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족과 시간을 갖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려는 사람보다 교회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왔다. 매주 6일은 일터에서, 하루는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가족과 보낼 시간은 거의 얻지 못한 실정이었다. 대교회를 이루느라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목회자들 자녀 가운데 일부 불신자가 생기고, 교회에 오래 충성한 장로에게서 기독교에 적대적인 자녀가 일부 나타나는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을 키워주어야 하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도 적어서 서로의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부부 사이에 대화 시간도 대부분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며, 부부만의 시간을 얻기 어려운 실정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회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했지만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내놓지 못했다. 부부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로 나누어져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윤용상, 2002a).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주말 여가 시간을 주로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처럼 가족 중심의 삶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은홍, 2001c). 주5일 근무제는 부부에게 이전보다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지금껏 부부만의 문제로 대화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5일 근

무제가 주는 여가는 부부 사이에 갈등을 낳을 수도 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가정의 불안과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교회는 부부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주말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전보다 가정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짐에 따라 가정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실망을 극복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있다. 주말 교회에 가정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 사역에만 중심을 둘 때 위험한 점이 있다. 가족 중심주의나 가족이기주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보다 큰 신앙공동체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정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토대이지만 그 신앙 공동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김은홍, 2001d). 따라서 교회는 가정 중심의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성도의 교제 강화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초원교회의 경우 교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성교회 회원들이 매일 교회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하도록 한다(박건상, 2002).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철저히 지역에 기반을 두는 지역교회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같이 감당하면서 더 깊어진다.

III. 맺는 말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은 한국 교회에 위기감을 불러왔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처음에 주5일 근무제도는 신학적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제도가 성경적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가는 논의였다. 하지만 목회 현장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의 결과를 오래 기다릴 형편이 되지 못했다. 현실 목회 현장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 교인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주5일 근무제의 의미와 일반 사회에서 나오는 찬반 양론을 살펴보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 자체가 아니라 도입 시기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뜻한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우리 사회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 먼저 이 점을 다루었다. 특히 가정과 여가 문화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함을 지적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일이 교회의 책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보인 반응을 살펴보았다. 일차적으로 나온 부정적 반응과 그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았다.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의미 있지만, 당장 현실로 닥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목회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목회적 차원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나왔으며, 그 방안을 실제로 시행하는 교회들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그 방안들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여러 대처 방안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대안문화 제공이나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주말학교, 가정 중심의 사역 등은 교회 사역의 일부이며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역은 일반 사회의 활동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새롭게 개발된 활동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곧바로 세속화의 길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복지활동을 하지만 사회복지 기관이 아니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평신도 전문 사역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교육과 봉사, 교제리는 실천을 통해 신앙을 높여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일과 예배를 이원화하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온전한 예배와 주말의 부부 중심 프로그램, 가족 중심 프로그램 등의 공동체 교육과 친교, 봉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제도나 조직이 직분자 중심의 관리형 제도에서 벗어나 모든 교인을 헌신자로 세우는 양

육 사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이만규 목사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연용, 2002). 그러한 경우 한국 교회는 다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의 세속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가정해체의 지름길”, 『기독교 신문』 2002년 11월 3일자.
- “국내국의 사건일지 10대뉴스”, 『기독교신문』 2002년 12월 29일자.
- “내년부터 주 5일 수업 확대”, 『교육소식』 2002년 10월 21일자.
- http://www.xtraclass.co.kr/new_edunews/edu_center_detail.jsp?vPeducnews_cd=33
- “은행권 주5일 근무…내수株시대 다가온다”, 2002년 5월 25일
- http://www.hanshincon.co.kr/News/news_content.asp?news_idx=263
- “주 5일근무제 시행 후에도 ‘주일’ 지킬 것”, 『기독교신문』 2002년 6월 16일자.
-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5일제 수업」의 운영방안”,
- <http://www.salesio.es.kr/week5/week5.asp>
- 고성훈 (2002), “여가 늘어도 즐길 곳이 없다”, 『매일경제』.
-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2002), 『주5일 근무제 자료집』, 서울: 기가연.
- 김무정 (2002), “선율에 맞춰 성탄의 기쁨…땡! 땡! 땡”, 『국민일보』.
- 김배경 (2001), “ 주5일 근무제 비성경적 아니다”, 『기독신문』.
- 김선희 (2002), “주 5일제, 뭐가 바뀌었나?”, 『YTN 뉴스』.
- http://www.ytn.co.kr/new_httpd/special/culture/culture_view.asp?prg_code=1&keys=543
- 김성봉 외 (2002), 『주5일 근무제와 한국교회』, 서울: 예루살렘.
- 김은홍 (2001a), “국민 대다수 찬성…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계획 가장 커”, 『기독신문』.
- 김은홍 (2001b), “주 5일 근무제와 가정 사역/가치 높이면 한국교회 도약 기회”, 『기독신문』.
- 김은홍 (2001c), “기독교인 76% 5일 근무 ‘찬성’”, 『기독신문』.
- 김은홍(2001d), “주5일 근무제 기획/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③ 신앙은 공동체에서 자란다”, 『기독신문』.
- 김은홍 (2002a), “주5일근무 교단 대책”, 『기독신문』.
- 김은홍 (2002b), “주5일 근무제 자료집 나왔다”, 『기독신문』.
- 김지방 (2002), “영혼의 휴식 찾아 ‘신앙 여행’”, 『국민일보』, 4173.
- 김태진 (2002), “5일제 근무 확산 젊은층 라이프 스타일 잡아라”, 『중앙일보』.
- 김해은, “영성추구목회 올해에도 계속될 것”, 『기독교타임즈』.

<http://www.gamly.com/show.asp?kind=20&index=3298>

남태섭 (2002), “바른 신앙 지도 우선,” 『기독신문』 .

문화부 (2002), “장기적으로 ‘문화 수요’ 는다,” 『문화일보』 .

민성식 (2002),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대비한다⑧ - 순복음인천교회,” 『기독교신문』 .

박강우 (2002), “주 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도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http://issue2.daum.net/2002/07/09_5work/profa/.

박건상 (2002),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대비한다⑥-초원교회,” 『기독교신문』 .

박민균 (2002), “여주 광현교회, 지역선교 본격 지원,” 『기독신문』 .

석원태 (2002), “주5일 근무제에 대하여(2),” 『기독교신문』 .

성민혜 (2001), “신촌포럼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회대처 방안 논의,”
『기독교신문』 .

안연용 (2001), “성경에 위배된다 아니다,” 『기독신문』 .

안연용 (2002), “주5일 근무제시 교회구조 변화 시급,” 『기독신문』 .

우은진 (2002),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대비한다⑤ -일산 광성교회,” 『기독교신문』 .

윤용상 (2002a), “가정의 달’ 특집④ - 부부문제,” 『기독교신문』 .

윤용상 (2002b), “주 5 일근무제-안식일의 신학적 문제를 점검 한다,” 『기독교신문』 .

윤용상 (2002c), “주 5일 근무제 실시 따른 교회 대처방안,” 『기독교 신문』 .

윤용상 (2002d), “교회개방은 새로운 전도 기회,” 『기독교 신문』 .

윤용상 (2002e),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대비한다 ② - 성광감리교회,” 『기독교신문』 .

윤용상 (2002f),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대비한다 ⑩ - 연수제일교회,” 『기독교신문』 .

윤용상 (2002g), “주 5일 근무제 이렇게 대비한다⑬- 부천제일교회,” 『기독교신문』 .

이 선 (2002), “<십자가>주5일근무와 기독교” 『크리스찬 신문』 .

이기영 (2002), “‘週5일 근무’와 가정,” 『세계일보』 .

이동현 (2001), “주5일 근무제,” 『KAIST TIMES』, 202.

이석훈 (2003), “사회봉사하는 ‘모델교회’ 소망,” 『기독교연합신문』 .

이영권, “이영권의 글로벌 칼럼: 주5일 근무제,”
http://www.ope.co.kr/study/global/new_global40.html

이용식, “주5일 수업은 사회 전반의 주5일 근무를 전제로 해야 한다,”
<http://5days.nodong.org/member/mem1.htm>

이지현 (2001), “주5일근무 대비 목회프로 개발,” 『국민일보』 .

임성빈 (2001), “주5일 근무제를 준비하는 교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의 모색,” 주5일 근무,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신촌포럼

전병금 (2002), “주5일 근무제와 교회 선교” 『기독신문』 .

정무성 (2001), “주5일 근무제, 한국교회에 끼칠 영향,” 『주5일 근무,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신촌포럼.

조희섭 (2002), “예장고려 주5일근무제 정부정책 고려 촉구,” 『크리스찬 신문』.

조희섭 (2002), “주5일근무 따른 예배 지각변동,” 『크리스찬 신문』.

함인희 (2002), “주5일 근무제시대 …능동적으로 열어가라,” 『주간한국』.

ABSTRACT

Korea Church and Five Days' Work

Lee Kyung Jik

This article concerns firstly with the meaning and the challenges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ve Days' Work, secondly with changes and responses which result from the new working system. Furthermore it tries to show how the Korea Church overcome this apparent crisis; (1) The so-called garden church can give church members worship and leisure; but it has some problems. ① Most Korean churches has no financial and personal ability to build and manage the garden church, ② Garden churches in the suburbs and villages will absorb the members of the small churches in that areas. In this article a modification is suggested: the coporation of city churches with the village churches. (2) The observance of Lord's Day should be taught and emphasized in the Korean churches, but it in itself is not enough to persuade beginners and non-christians in the church. So (3) alternative Christian culture should be designed and given in the church. Furthermore (4) the facilities of the church should be open to the people in the society; Church members should be given many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the social programs for the non-Christian in the society. Especially (5) the weekend schools of churches for the children, the young people and the couples of the society can be an alternative and complement for the institutional education. The friendship of the church members can results from these activities which can be intensifi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ive Days' Work.

Key Words: Five days' work, worship, leisure, garden church, alternative Christian culture.